

“13년 싸움 지켜준 가족과 동지들 덕분이다”

콜텍지회 부당 정리하고 철회 합의안 조인식 열어 ... “고통받는 노동자 없도록 정리하고제 철회해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와 콜텍이 4월 23일 오전 10시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정리하고제 해고자 복직 문제 관련 합의안에 서명했다. 콜텍지회가 13년 동안 벌인 부당 정리하고제 철회 투쟁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조인식에서 “정리하고제는 노사 모두에게 제로섬 게임이다. 정리하고제로 기업이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노사가 정리하고제 기업이라는 낙인과 해고자라는 고통을 겪었다. 콜텍지회 합의가 노동자에게 정리하고 낙인을 찍지 않는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콜텍에 “콜텍이 한국에서 얻은 경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공장을 운영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조인식에서 “13년 긴 세월을 투쟁해 성과를 얻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우리처럼 부당한 정리하고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었으면 한다”라며 “해고는 살인이다. 한 가족을 무너뜨린다. 모든 노동자가 해고 걱정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한다”라고 기원했다.

노조와 콜텍지회, 시측은 전날 잠정 합의한 합의문에 대표자가 서명하고 교환했다. 콜텍은 합의에 따라 2007년 정리하고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해고자들은 합의에 따라 올해 5월 2일 복직해, 5월 30일 퇴직한다. 콜텍은 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영호 콜텍 대표이사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 생각한다. 세 명의 노동자가 긴 투쟁으로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생했다”라며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 생활을 누리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인근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다면 우리 투쟁이 2012년 2월에 끝났을 것이다.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우리는 7년이나 더 거리에 서 견뎌야 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정리하고제 폐지와 근로기준법 24조의 해고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13년 투쟁을 지지하고 지켜준 가족과 동지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했다. 임재춘 조합원은 42일 동안 감행한 단식을 돌아보며 “13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잔인한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단식투쟁은 내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경봉 조합원은 “13년 투쟁 동안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돌보아야 했던 가족이 받은 고통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라면서 “콜텍지회가 올바른 투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한 모든 동지가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한 동지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김경봉 조합원은 “13년 투쟁 동안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돌보아야 했던 가족이 받은 고통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라면서 “콜텍지회가 올바른 투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한 모든 동지가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한 동지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다시 우리처럼 불행한 노동자가 거리에서 헤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임재춘 조합원은 42일 동안 벌인 단식으로 건강을 해쳐 녹색병원으로 몸을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4464일 투쟁 단식 42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중압감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 기쁘다. 연대와 응원을 보내준 양심 있는 시민과 단체, 종교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합의였다”라며 “금속노조 서른 곳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힘을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4464일 동안 거리에서 투쟁했다. 콜텍지회는 2009년 12월 해고 무효확인 민사소송과 임금청구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지만,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가 당시 대법원장이었다. 콜텍지회 판결은 양승태와 정와대의 대표 재판 거래 판결 가운데 하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 대법원판결마저 무시하고 노조탄압

4.23 한국타이어지회 상경투쟁 ... “현장 밖 사무실 제공, 잔업·특근·강제 전환배치 차별”

한국타이어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지회를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회는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는 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상경투쟁을 벌였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확대간부와 조합원 200여 명이 4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4.23 서울 상경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선전전과 집회를 벌이며 한국타이어의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탄압에 항의하고, 지회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복수노조 상황을 악용해 기존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편의를 제공하지만, 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했다. 지회는 회사를 2015년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 제소했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31일 지회에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회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회사와 세 차례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회사가 조합원들이 접근하기 어려



운 곳에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해 협의는 무산됐다.

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회사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잔업·특근에서 배제하거나, 강제 전환배치하는 등 차별대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노조탄압을 호소하자 집마다 회사 명예훼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등기로 보내는 협박을 했다.

송석규 한국타이어지회장은 대회사에서 “한국타이어는 윤리경영을 하고 노동존중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 지회 사무실을 제공하고 지회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가 살고, 노동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석규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가족과 부모에게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고

가정불화를 일으켜 노조를 탈퇴시키는 공작을 벌이는 회사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송석규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회사의 탄압 행태에 위축되지 않는다. 지회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대법원이 금속노조 지회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타이어는 최고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탄압한다면 금속노조는 끝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격려했다.

이날 대회에서 한국타이어지회 대표자들이 회사 임원들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시는 다음 주에 노사협의를 거쳐 지회 사무실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조합원들을 기만하면 더 큰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하고 상경 투쟁을 마무리했다.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포스코건설

포스코 ·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15명 산재 사망 ... “산재 사망, 기업 자행 구조적 살인행위”

포스코건설이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2018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두 하청노동자이다.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4월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공동 캠페인단은 살인기업 2위로 노

동자 9명이 사망한 세일전자를 뽑았다. 포스코, 대림산업, (주)한화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회사마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위와 3위 기업 대부분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두영건설도 공동 6위로 살인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캠페인단은 “한국사회에 산재 사

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라고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 캠페인단은 “매년 반복하는 산재 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